

금주일이 집착을 풀면 그것은 곧 제도로 다른 것은 다시 생기지 않으리니, 모든 악마의 경계를 벗어나면 마치 저 해가 청명함 같으리라. (법구경·계신품 103절)

東大新聞

편집부: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126호
 전화: 260-3491~2 FAX: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 770-2357)

제 1199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6년(불기 2540년) 4월 22일 (월요일)

1

통일시대 대학타운 건설계획 발표

논의 없는 전격 발표... 학내갈등 심화될 듯

본교의 캠퍼스 분산이전 계획이 가시화됐다. 송석구 총장은 지난 18일 타워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0만평 규모의 '통일시대 대학타운 건설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학생들은 아무런 논의없이 이전계획을 발표함에 대해 어이없어 하는 등 제3캠퍼스 이전을 둘러싸고 학교와 학생간의 대립이 심화될 움직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1차적으로 오는 98년에 착공, 2002년까지 경기도 고양시 석사동 일대 7만5천평의 부지에 6백여억을 들여 대학시설을 건립, 서울캠퍼스의 공과대·이과대·생지대 등 자연과학 관련학과를 모두 이전키로 했다. 또한 2010년까지 추가로 15만평의 부지에 화학·컴퓨터 및 정보산업 멀티미디어 건축도목분야를 이공계열 첨단 기업연구소를 유치, 국내최초의 대학내 '신학연구단지' 건설계획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본교는 이미 삼성 데이터시스템·고려화학·데이콤·마이크로 소프트사·증권 미디어등과 캠퍼스내에 별도의 기업연구소 설립하기로 합의했으며 다른 기업들과도 협력방안을 모색중이다.

한편 캠퍼스 부지일부에 2000년까지 5백병상 규모의 양·한방 종합병원을 세우고 2006년까지 1천병상으로 확대할 계획도 추진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30만평 규모의 '통일시대 대학타운'이 일산 신도시 일대에 건립된다는 것이 이 계획의 주요골자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총장은 "이번 대학타운 건설계획은 통일시대에 대비해 캠퍼스를 확충하고 쾌적



◇지난 18일 학교당국은 일간지 기자회견을 통해 '통일시대 대학타운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북의 긴장이 완화될 경우 대학타운 규모를 1백만평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개교 90돌을 맞아 본교의 21세기 비전상을 제시하고 확실한 본교 홍보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황인구 부총학생회장은 학생들과의 논의없이 이전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에 대해 "이미 학생들과의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된 학부제가 여러 시행착오와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검증'을 해주지 않았느냐"며 제3캠퍼스 이전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또한 주요이전대상 단과대인 공과대와 이과대 학생회측도 이전에 대해 "영문 모를 소리"라고 일축하고 "구성원의 정확한 이해없이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가지는 학교측의 기만적 학사행정을 학우들의 힘으로 막겠다"고 밝혀 앞으로 어

편식으로든지 '투쟁'이 있을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공대의 한 학우도 이에대해 "일산이면 거리가 어떨든 일단 지방이지 않느냐"며 "결과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지원을 꺼려할 것이고 재학생들도 이전에는 반대이다"고 말해 제3캠퍼스 이전계획은 단과대의 이전계획발표때처럼 학생들의 큰 반발을 가져올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이전계획 발표에 대해 성급한 '계획'에 맡길것이라는 일부의 시각도 있다. 특히매일, 기금마련, 학내 구성원의 중지를 모으는 과정등 여러 산적한 문제들이 많아 이번 '대학타운' 건설계획발표는 '대의 홍보용'이라는 지적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이전'이다. 반대한다. 홍보용이다라는 여러 의견보다 재추천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속에서 학사행정이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하루빨리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영규 기자)

전국 불교학술회의 지방불교 문화 활성화 기대

제25회 춘계전국불교학술회의가 '사명대사 유정의 재조명'이란 주제로 오는 5월11일 경남 밀양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불교학회(회장=김영태·불교학) 주최로 열린다.

이번 학술회의 발표 순서는 △사명대사 유정의 생애와 사상=김영태(본교·불교학) △사명대사 유정의 시세계=이종찬(본교·국문과) △사명대사 유정의 국가관=이봉춘(본교·불교학) △사명대사 유정의 직진정탐기 및 삼대소 고찰=이진오(부산대·한문학)이다.

본교 불교문화연구원의 김용표연구원은 "사명대사에 대해 국가적 측면에서 재조명하는 한편, 밀양지

방과 관련하여 지방불교문화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번 회의의 의의를 밝혔다.

열람석 독점방지

중앙도서관(관장=정병조·국민윤리학)은 열람실내에 개인 소지품인 방식, 책등을 이용해 자리를 독점하는 학생들을 규제하기 위해 '환경정화'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도서관측은 그동안 학생들이 열람실좌석에 책가방 등을 방치하여 이용자를 떨어뜨리고 있어 밤 11시 30분이후 열람실거처리를 할 것을 밝혀 학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고은시인 초청 법회

오는 6일 정각원에서

제2회 한국문학작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소설 화연경의 작가 고은시인을 강사로 하는 고승초법회회가 '불교문학의 길'을 제목으로 오는 6일 정각원에서 마련된다. 개교90주년을 맞은 올해 불교도 주간에 개

최회는 고승초법회에 시인을 초청하기는 처음이다. 고은 시인은 효봉스님을 은사로 51년 득도했으며, 57년 불교신문 초대주필, 80년 '실천문학' 창간, 90년 민족문학작가회 회장을 역임 했다.

21C기획단 2차 사업계획 검토 유망학과·수익사업등 논의

21세기 기획단(단장=정병조·국민윤리학)은 96년도 2차사업계획을 검토하는 연찬회를 오는 26일 타워호텔에서 가진다.

이번 연찬회는 지난달 26일에 열린 회의에서 배정받은 연구분과에 대한 위원들의 발표와 토론이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 위원들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래첨단 학과및 유망학과=홍승기(무역학·경영대학원 교학부장), 김병식(화학공학) △차세대 교육과정=박부관(교육학) △수익사업=정창근(무역학) △대학행정 쇄신방안=이형우(행정학)

보리수

합장하는 마음

각 지역의 문화권에 따라서 인사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권에서는 모체를 투지하고 예를 표하는 큰절법이 있는가 하면, 서양에서는 상대방을 만나면 서로 손을 마주 잡는 악수도 있다. 또 러시아등의 공산권에서는 상대방을 끌어안는 포옹도 흔하 볼 수 있다.

그런데 인도문명을 중심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인사법중 하나가 합장이다. 이는 지금도 인도, 네팔,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등의 동남아시아에서 하고 있다.

이러한 합장법을 불교에서 자연스럽게 수용하므로 인해 이교는 불교의 인사법으로 인식되고 말았다. 그러나 엄밀하게 본다면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합장을 사용하고 있다.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도 신에게 기도 할 때는 합장을 한다.그런데 특히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종교는 불교이다. 다른 종교에서는 초월자나 신에게 기도할 때만이 행하지만, 불교에서는 부처님전에 기도하는 경우 이외에도 불사들끼리 만나거나 혹은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있거나 남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자연스럽게 합장을 한다. 합장은 가슴의 명치부근에 두 손을 모으고 손가락끝은 코로 향하여 합하게 가능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힌다. 그러나 만약 한손에 물건

을 들었을 경우는 한손만으로 하여도 상관없다. 여지로 물건을 들고 두손으로 하거나 양바닥에 놓고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두손으로 할 경우는 손바닥과 손가락은 모두 붙여야 한다.

모든 인사법이 마찬가지로 이렇지만, 합장은 상대방에 대한 친근감과 존경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불자를 깨리는 서로 낮모르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합장만 하여도 마음이 통하며 친근감을 진하게 느끼게 된다.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로 하여 당신을 존경합니다라고 하니 상대방의 인격을 최상으로 존중하는 인사법이다. 또 여기에는 두 손을 모으므로 나의 손에는 당신을 해칠만한 무기가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는 평화와 화해를 상징하는 것이 된다. 한편 종교적으로는 귀의와 공양의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최상의 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요즘 교정에서는 합장하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띄고 있다. 특히 자와 명상시간에 배운 합장을 숙스려워 하면서도 살짝하고 지나가는 새내기들의 뒷모습을 볼 때 가슴이 뿌듯함을 느끼곤 한다.

한보광

선학과 교수

노동절 106주년 기념식 학술문화관 중극장에서

노동절 106주년 기념식이 오는 5월1일 학술문화관 중극장에서 열린다.

본교 직원 모두 참석하게 될 이번 행사는 노동의 참의미를 찾고 단결차원에서 치루지게 된다. 직원노조(위원장=김윤길)의 관계자는 "학교사정상 직원 대부분이 맡은 임무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기념식과 점심식사를 마친후 근무는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원노조는 이날 교내 2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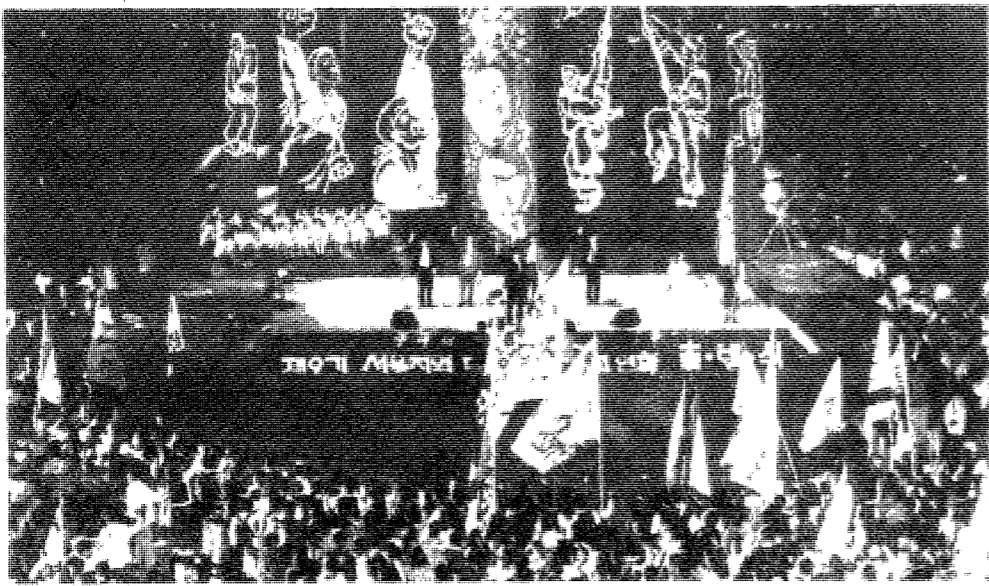
32명 모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교수동정

▲송석구(철학)=동국의료원과 미국 하와이 쿨리리자베스 병원간 의료진료교류 및 학술연구를 위한 자매결연협약 체결 조지호 의료원장과 함께 지난 22일 출국했다.

알림

중간고사 관계로 1200호는 오는 5월 6일자로 발행됩니다.



◇'구국의 횃불' 문 낭독후의 모습.

서송헌 출범식이 지난 19일 '기여코 열사의 피값을 받아내리라'는 기초 이래 본교 대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관련기사 4면). 위사진은 출범식연 (김기영 기자)

일일 강의확인제 실시 강의 상황 개선에 보탬

강의분반, 강의실 변경, 교수사정으로 인한 수업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교무과(처장=장오현·경제학)는 '일일강의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방안은 지금까지 한 주간의 강의상황을 확인하는 '강의주보'가 있었으나, 학부제 실시 이후 수업진행에 큰 혼란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 필요성으로 인해 실시하게 됐다.

교무과 한 관계자는 "수강신청 최종 확인 이후 강의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학기에 유난히 강의진행에 문제가 많았던 것은 학부제 시행에 따른 시범적외와 절대공간 부족이라는 큰

본적인 면이 있지만, 학생들의 수강신청 상태 파악이 늦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운동인의 밤 개최

체육부(부장=정창현)는 지난 15일 엘버서더호텔에서 야구부 전국대회 우승을 기념하여 '운동인의 밤'을 개최했다.

운동부 선수 전원을 포함하여 총 1백8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는 송석구(철학)총장의 격려사와 정용길(정치외교학)부원회장의 금일병 전달후, 저녁을 함께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겨레와 함께
동국 90년

1906

참사람
열린 교육

개교 90주년

90

동국대학교

세계와 함께
웅비 동국

100
동국 100주년

1996

개교기념식
1996년 5월 8일(수요일) 오전 10:30
서울캠퍼스 학술문화관 중극장

기념공연 <KBS 열린음악회>
1996년 5월 7일(화요일) 오후 6시
서울캠퍼스 대운동장

윤이상음악회 - 韓光 겨레의 항해를 보니
1996년 5월 15일(수요일) 오후 7시, 여의도KBS홀
1996년 5월 17일(금요일) 오후 5시, 서울캠퍼스 불상당

<이민> 동국100년 추원의 밤
1996년 5월 29일(수요일) 오후 8시 30분
힐트호텔 컨벤션센터

미래동국을 예감한다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하이텔을 이용하실 경우, DGU 10번게시판이나 ID: dpress@del을 통해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사회주의 학생연맹 사건에서 드러난 인권침해 국보법의 모호한 개념규정 올바르게 지적해야

지난 3월28일 사회주의 학생연맹이라는 조지의 학우들 12명이 강제연행당한 사건이 있었다. 현재 이 학우들은 모두 3월28일 오전에 강제연행되어 이적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는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20일이 넘는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작년의 사회주의기간 대오사건에 이어 올초 사노병(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재건위 사건, 서울대 노내자 사건, 마지막으로 올 3월28일에 있었던 사회주의 학생연맹 사건은 김영삼 정권이 96-97년 권력재편기를 앞두고 공안정국 조성과 학생운동 탄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권력재편기에서 자신의 세력확보를 위한이 된 정부의 음모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분단 이후 '국가보안법'이라는 족쇄로 정권의 폭력적 정치를 저항하는 민중들의 투쟁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자행해온 것이 문민정부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사건 또한 정권의 음모에 대한 투쟁을 전개해 왔던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에 불과하며 '국가보안법'이라는 족쇄로 운동진영을 말살시키려는 음모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명확하게 드러나며 각종의 악법으로 학생운동 등을 포함한 민중운동, 노동운동세력들을 탄압하는 현정권과 보수정권에 대해서 학우여러분의 명징한 평가와 더불어 현행법에 드러나는 문제점을 올바르게 지적했으면 한다.
이번 사회주의 학생연맹 사건에서 드러나는 인권침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행 및 조사과정에서도 드러나는 문제는 긴급 구속영장의 제시도 없이 3-6인의 형사들의 무단 침입속에서 가택수사와 함께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되었다. 둘째, 국가보안법 제7조, 1, 5항의 국민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 예술

등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들을 유추해석하여 이미 짜놓은 수사 시나리오에 맞게 자백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며, 셋째, 수사청년부터 지금까지 잠을 재우지 않는 철야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현재 형사소송법, 경찰의 직무집행법의 고문을 금지하고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설정한 것에 위배된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접견시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현재에도 수사관 3-4인을 배치시키고 있는데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국가보안법의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규정을 정권이 정하는 대로 미리 수사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학생운동과 민중운동을 탄압하려는 무기로 사용하는 이상 학원내에서 학문·사상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이 범용 (인문과학대 사회복지학)

◆총선 결과를 바라보며 국민, 진보진영에 관심 필요

우리의 주관적 열망을 빚겨자다 해서 현실을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총선을 차분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몇가지 두드러진 현상이 나타났다. 지역구도의 은근, 저조한 투표율, 여·야구도의 해체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주의 타파를 내건 민주당의 패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지역구도는 당장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구도를 넘어서며 정점을 만들어 나가는 운동의 가능성을 참여연대에서 벌인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후보자 서명운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운동에서도 이러한 국민적 정점을 만들고 이를 가지고 선거에 가입하는 방식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과거 민주당 반민주의 대립구도가 명확하고 야당이 상대적으로 개혁적이었던 정치구도에서는 야당이 우리에겐 차선이었다. 지금의 제도정치는 여야구분 없는 전향적 보수화의 길을 걷고 있다. 때문에 국민회의는 더이상 우리에게 차선이 아니다. 차선은 이미 인물로 옮겨졌다. 이번 총선의 패배로 DJ는 지역구도에 더욱더 권할 수밖에 없으며 보수세력 끌어안기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이제 DJ는 우리에게 무의미하며 오히려 지역구도와 보수화만을 부추길 것이다.
민주당의 정치실용은 실패로 돌아갔다. '솔로전'만을 내세운 정치는 냉혹하지만 현실정치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슴아프게 보여준 여였다. 박태준 같은 사람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민주당에게 선택표를 던지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단적으로 젊은 층이 민주당 인사보다는 신한국당의 개혁적 인사에게 표를 던진 것이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민주당의 개혁적 인사 낙선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선거기간 중 차선만을 선택받았지 최선을 선택할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최선의 선택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진보진영의 책임이자 반성의 지점이다.
YS는 이번 총선을 통해 자신의 개혁이 국민들에게 일정하게 지지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민들이 개혁에 대해 지지한다는 것은 보수 정치세력과 진보진영에게 동시에 과제를 부여한다. 모든 정당은 자신의 독주가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중간고사

▶어떤 91학번생애가 그랬다. 난 1학년때 도서관에서 살았다고 근데 그게 후회된다.
▶강의실이 계속 바뀌어서 간신히 찾았는데, 전번주가 중간고사였다.
▶뒤라해야 하나...
▶북학성의 중간고사, 첫사랑의 애인을 만나는 것처럼 손 떨리는 고통.
▶신입생들은 모두 F를!
▶교수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외국인용병) 시험범위, 출제경향, 시험, 강의실, 모두 이상한 말로만...
▶선배들이여... 적당히 봅시다. - 신입생

▶신의 축복인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이날, 중간고사에 치여 도서관에서 공부정하게 있는건 아깝지 않을까? 학우들이여! 갑갑한 이곳을 탈출하자!
▶휘발유는 엔크린, 성적은 레포트
▶한번 농친 중간고사가 대학생활을 좌우할까?
▶open book이 아니라 open paper라면?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건 살아 있다는 것이다. 나도 시험 보고 싶다.
▶우리가 고통학생인가?
▶신입생도 시험을! 쾌적이다.

한의대 1백80여일의 수업거부투쟁 한의학 바로 설 법적제도 보장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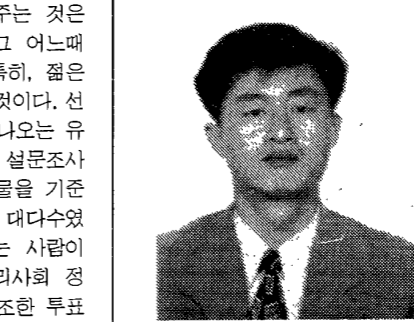
지난 1백80여일의 수업거부투쟁을 시한부 수업거부투쟁으로 전환한 지 20일 남짓 되어간다.
우리는 4·11총선후 원칙적으로 책임감있는 정책을 약속했던 보건복지부에 실낱같은 기대감을 갖고 차후항방을 예의주시하기 위해 수업에 복귀했다. 또한 학생들의 투쟁 외에는 왜곡된 현의학을 되살리기 위한 그 누구의 노력도 기대할 수 없었던 현실을 비판하면서 주체역량강화를 명분하에 수업거부투쟁을 선택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4월 18일에 약사의 한약조제시험이 5월 18일로 보건복지부에 의해 확정발표됨에 따라 총 3회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약사회의 의도대로 흔들림을 내포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미 약사법상 한약조제시험을 두 번 시행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에 실시했던 한약조제시험이 참가인원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엄연히 40명정도의 합격자가 존재하고 있음에서도 시험

재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단순히 시험한번 더 치르는 것이 아니다. 결국 기존에 불법으로 한약을 조제해왔던 약사 모두에게 합법적인 시험을 이용해서 한약조제의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합격률 1백%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은 시험의 의미마저 퇴색시키고 있으며 마치 눈이 붉은채로 밀가루를 쳐내는 우순을 팔을 내버리고 있다.
이러한 주위사항은 확답이 적절하고 또 의사로서 쌓아야 할 지적의 덕목들도 이미 두 어깨가 무거운 우리들을 다시금 투쟁의 거리로 내몰고 있다.
93투쟁 이래 줄곧 우리 투쟁의 대전제는 국민건강권확보와 민족의학의 사수였다. 그리고 이상의 실천 방법은 개개인의 관점의 차이에 의해 다를 수 있으며 인간본성과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지만 않는다면 옳고 그름 경중의 차이를 뛰어넘는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다. 장차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리는 다양

한 소프트웨어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하지만 제기능대로 일괄적할 수 있는 하드웨어인 법과 제도가 구비되어있지 않다면 결코 율계 사용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금전으로 얼룩진 기성세대들의 정치행태에 개탄하면서 한의학이 율계에 설 수 있는 법적 제도적보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4월은 핏빛이다. 그야말로 역사를 바로 세우기위해 투쟁했던 노수석열사를 비롯한 4·19의 수많은 열사들의 핏빛이고 노수석 열사의 투쟁은 결코 한의대생만의 투쟁은 아니다. 일제시대 한의학의 전진화와 미군부의 무분별한 의료행정의 도입 등으로 기형적으로 변해버린 한의학을 제모습으로 돌려놓는 일 또한 역사 바로세우기의 하나임을 우리는 주지해야 한다.
최 주리 (한의대 한의학과)

동/문/갈/림

다시 오는 5월



침묵을 살아내고, 그 삶을 끝으로 영영의 무덤은 그 또한 침묵의 연속 아닌가?
침묵은 5월에 풍요로운 감각의 진동을 더하겠지 같다.
5월의 침묵에는 그윽함이 있으며, 파격이 있으며, 또한 향기가 있지 아니한가? 임태와 출전의 준비를 갖춘 운동선수들과 같이 의지와 용기, 그리고 삶을 향한 끊임 없는 투쟁의 모습이 5월의 빛깔은 아닐까?
침묵은 또 다른빛의 사색을 동반한다. 그 사색의 한가운데에서 5월은 지난겨울의 감동스런 회상을 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중 백미이다. 10월이 푸르름의 지양분으로 결실과 수확의 계절이라면 5월은 소년기이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록의 계절인 것이다.
10월 장년기의 원숙은 들뜬 마음을 가라 앉혀 깊은 사색의 상념을 갖게 하지만 5월 청춘은 모른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게한다. 그래서 나는 10월의 낙엽지는 소리 보다는 5월 새싹 솟아는 소리를 더 좋아한다.
5월은 전진의 계절이요, 노동의 계절이며 젊음의 정이며, 천진난만의 계절이다. 그래서 5월의 매력은 더욱 값지게 빛이 난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 시간은 침묵속에서 보낸다. 태아의 소리없는 침묵의 성장에서 태어나고 모체에서의 큰 울음의 탈출과 함께 삶의 아우성치는

목errick

명동에서 놀자!
- Black God

■경상대신문 창간 축하합니다.
- 유현

■홍인산 생일 축하하고 항상 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인다.
- 산공과 어느 90선배가

■규식이 수술 축하해!
- 전산통계일동

■전산통계학부 김미경 생일 축하한다.
- 너의 Darling

■수고하셨습니다

■서흥연 출범식을 준비하신 동국대 자부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오돌대장

■그루터기 10호 만드느냐고 화공과 편집부 수고했다.
- 편집1부장

■있잖아요, 우리 남총련이거든요. '동일일문 전진대회' 잘 사수하고 갑니다. 고맙구요. 동국대학우님들과 함께 활랑 조국통일 안아보고 싶습니다.투쟁
- 96.4.16 남총련신화 반미국 순천대 학교 통일전사 이모기. 창수가

■"불합학회 학우님을 수고하 많

■우리가 DGU가 천리안 우수 동료회로 선정된 것을 축하합니다.
- 천리안 동태동 사삼

■사과촌! 6번째 맞는 생일을 마니 마니 축하해 주세요.
- 사과촌

■물리과 박창수의 생일을 무지무지 축하합니다. CPA이까씨의 사랑이 꽃피길 빌면서.
- 90년 동기일동

■양숙이 생일을 유현이가 무지 축하합니다.

■세규, 종필, 지호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 셋바람

■여성문제연구회는 셋바람의 10주년을 축하하며 영원한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 일반동와 학우중 2명이

■현경아! 생일 축하해
- 동국문학회일동

■문용아! 생일 축하하긴 하는데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빠른 쾌유를 빈다고 전해주세요.
- Super Ultra Max

■라이온스클럽! 불답안기만 가만 안두세요!
- 보·사·연

■됐다!!! 김치동and장은숙 17기 7:10 SBS TV퀴즈미팅출연! 1등상품 세계여행 티켓 획득.
- 최중 96法

■동진이 너에게 신경쓰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 최중 96法

■봄철전국아미아구선수권대회에서 동대아미아구부 LAE의 우승을 기원합니다.
- 197기 X

동/악/광/장

다함관 식당

22(월)	홍남동(900)	소고기(1000)
23(화)	돈육(1000)	양념통닭(1500)
24(수)	부추김치(1000)	사골곰국(1000)
25(목)	소고기(1000)	카레(1000)
26(금)	김치부추(900)	죽(1000)
27(토)		훈제비빔밥(1500)

동국대 학생식당

22(월)	김치부추(900)	아메리카노(1000)
23(화)	오징어(1000)	홍남동(900)
24(수)	유부김치(900)	돈육(1000)
25(목)	갈비(1500)	양념(1000)
26(금)	*훈제비빔(1000)	*적성(1000)

교직원식당

22(월)	양념(1000)	꽃고추(2000)
23(화)	동국대(2500)	생선조림(2500)
24(수)	삼계탕(3400)	아메리카노(2200)
25(목)	두부전골(2200)	남국(2200)
26(금)	*훈제비빔(1000)	*적성(1000)

다함관 식당

■일문학과 배준호오빠 생일축하해요.
- 팽클

■선해아! 생일축하한다. 사랑해!!
- 용원친구 준호

■9대 민중문화운동연합 출범식을 축하합니다.
- 생각있는 학생

■한가족 같은 불휘17기 귀여운 동생들의 첫 단발회를 축하한다. 정말 멋진 불휘원이 되도록...
- 1671 장

■동국대 야구부 7년만의 춘계리그우승을 축하합니다.
- 야구에 미친사람들

■동국대, 용맹정진상 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 一

■종&진 너희들의 200일 정말 축하한다. 너희들이 love가 언제나 영원히길 빌게.
- 영

■국사학과 조교반(박성주)생신 축하해요.
- 갈·조

은방골

축하합니다

■조사나 탄생을 역시로 허벌라 축하해버려!
- 수스비주디와 풀풀이

■축하합니다. 동국대 축구부가 제14회 대·경중리리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 축구를 사랑하는 Sund

■순영아! 생일을 무지무지 축하해. 너의 뒤에 항상 우리(?)가 있다는 걸 잊지말고 열심히 생활하길 바라. 알겠지?
- K·A

■세훈오빠 힘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 축복 소녀가

■선해아! 운전면허 합격을 축하한다. 사랑한다.
- 안성기

■알립니다

■대구 대경원·송현 연합동문회 4월22일 열립니다. 도서관 휴게실, 신입생 다나와!
- 회장

■4월20~21일 호우회의 선배체육대회 꼭 비가 와야 할텐데(好雨).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좋은 하루가 되시길...
- 호우사랑

■4월18일 州高·女高하이원 갑니다.
- 62기 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학여 여러분. 등반대회 수고 많았습니다. 때조야 수고했다.
- 93 형욱

열심히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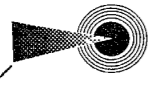
■총학생회! "열린교실"하느라 수고하십니까? 더 힘내서 우리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 이쁜소영

■동식아, 다가오는 중간고사 정성을 다하기요...
- 주누

■주형, 정관, 범석, 대규, 순재 공부 열심히 하고 꼭 군부시합 합격해라.
- 선배가

■재홍아, 함께 걸어가는 길속에서 작은 나무보다 큰 숲을 바라보다가구나. 이번일이 서로의 우정을 알기위한 과정이었거라 여겨진다.
- 너의 영원한 친구 시현이가

■곧 교생실습 나갈 9학년 3반! 학우들 수고하시고요, 교생일지라도 참교육 부탁드립니다.
- 부반장



시사논단

4·11 투표자 조사 오류

방송사의 정보판단력 부재가 문제
여론조사결과 보도기준 연구 강화해야



김용호
사회과학대 신학과 교수

국내 3대 방송사의 전국네트워크는 4·11총선의 투표가 끝나는 시간인 당일 6시부터 투표자조사결과를 동시에 발표했고, 방송역사에 남을 패거리로 자랑하였다. 3사 공동으로 25억원을 들여서 국내 유수한 전문조사회사들과 공동계약을 맺었고,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통하여 약간의 허용오차범위내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개표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유권자와 후보자들이 방송에 개표과정을 지켜보지 않아도 되고, 실제 개표가 3%만 진행되면 투표자조사결과를 참조하여 정당에 투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당하였다. 조사결과에 기초한 정당별 의석분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각 정당과 당선예정자들의 표정을 전하였으며, 조사결과 1위후보자의 당선소감을 미리 방송하였다.

역대 개표방송을 지켜본 적이 있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이러한 방송사의 노력은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다. 조사결과와 개표결과만 잘 맞아주었다면 이번 방송은 아무런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개표율이 약속한 3%를 지나 10%이상인 뒤에도 방송사들은 "당선확실" "당선확정" "당선유력"이라는 판정기준이 모호한 어휘들을 늘어놓는 데 그쳤으며, 요란하게 자랑하던 virtual studio도 겹겹이 그치고, 명백하게 당락이 결정된 투표구에 대한 정보가 치가 없는 내용조차 아까운 방송시간을 채우고 있었다. 급기야 개표결과와 집계에 따른 정당별 의석분포는 조사회사의 예측을 크게 빗나가고 말았다. 우물쭈물한 시청자들에게 사과방송을 하면서 방송사들은 합동조사계약을 맺은 5대 조사회사의 조사결과와 허용오차를 감안하자면 안 전히 틀린것은 아니며, 투표자조사가 아닌 출구조사를 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책임을 조사회사와 사실상 출구조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현행 통합방송법에 떠넘겼다.

현행 선거법상 허용되고 있는 출구조사는 투표구 출구에서 50미터 떨어진 곳에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출구조사는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투표당일인 오후 2시까지의 투표자에 대한 전화조사방식을 불가피하게 택한 그간의 사정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방송사들이 주장하듯이 출구조사가 실현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가? 기술적인 문제는 조사방식이 바뀌고, 표본수(특히 경향지역)를 늘리면서 오차허용범위도 줄어줄 것이다. 그러나,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정보는 품질수준에 대한 방송사의 판단력 부재와 개표방송의 시청률확보에 치우친 의사결정은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번의 투표자 전화조사를 진행하면서 방송사들은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빨리 전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을 뿐,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데는 미흡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궁극적으로 방송내용에 대하여 방송사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면, 투표자 전화조사시 흔히 지적되는 전화비밀유기문제, 전화조사사의 익명성보장과 조사원현원, 표본의 전 대표성과 RDD(random digit dialing) 도입의 문제, 투표당일의 조사시간조정, 조사결과와 한계점과 시청자유원점, 조사결과와 실제 개표과정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제 개표가 3%만 진행되면 투표자조사결과를 참조하여 정당에 투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당하였다. 조사결과에 기초한 정당별 의석분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각 정당과 당선예정자들의 표정을 전하였으며, 조사결과 1위후보자의 당선소감을 미리 방송하였다.

4·11 개표방송을 통해서 방송사들이 개표방송의 시청률을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방송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내부기준이나, 투표자조사결과와 보도기준들이 미비한 상태에서 시청자확보에만 급급한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 우선은 방송사내부에 조사관리기능과 여론조사결과와 보도기준과 양식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방송시간 합동조사의 의점이 분명히 있다. 방송사마다 다른 결과를 예측할 경우의 혼란을 예상하면 이는 분명하다. 그러나 순수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교 정보가 없는 시청자들로서는 단일정보에 대한 맹목적 신뢰를 강요당한 꼴이며, 이 번처럼 조사결과와 개표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방송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 사후약속방송이기는 하지만, 방송시간의 경쟁이 가능했다면 개별 방송사의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건강한 비교평가가 가능 하지 않았을까? 정확한 단일정보생산이라는 신기루에 이끌려 다양한 비교정보생산의 가능성을 막아버릴 경우, 방송시간 담합에 의한 정보통제라는 비판의 여지가 생기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충선 지역감정 진단

오홍석
사범대 지교과 교수

제15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충선이 끝났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표로 가름함으로써 북새통의 무대는 뒷전으로 옮겨 놓은 셈이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씩씩함이 여운으로 남는다. 오늘과 같은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에서 국가운영을 대행할 인물을 발굴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오직 누가 영도하는 정당이냐에 따라 인물에 관계없이 표표를 던지는 구태의연함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의 정당이 차별적 정책, 정강에 기초하기 보다 지역과 인물에 따라 할거주의로 발전하고 있음을 뜻한다. 세계의 흐름은 '하나의 지구'라는 슬로건에서 보듯이 국가와 인종을 초월하여 거시적 통합의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지도자는 이러한 흐름과 달리 내부지향적으로 지역에 얽매어 있으니 큰 정치를 표방한다고 말할 수 없다. 외치는 구호만이 거창할 뿐 실천적 행동이 예소하다면 이는 이중농음이고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는 훌륭한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러한 표방이 유권자에게 먹혀 들고 있다. 유권자가 맹목적 애향심을 갖고 있는데다 실질 생활이 지역범위를 넘어 생각할 수 없기 때

지역할거주의, 실리에 눈먼 정치자 책임
유권자 '애향심'을 '애국심'으로 넓혀야

문이다. 우물만의 개구리가 하늘을 쳐다볼 때 정체를 바라볼 수 없듯이 유권자들도 국토의 부분인 향토지역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나무랄 수 없다. 그러나 각각의 향토가 모여 수평확대될 때 국토가 되고 세계가 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를 지역주민에게 알기시키고 외부자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지도자의 역할이다. 그러나 본질에 입각할 경우 대권도전이 무위로 끝날뿐 아니라 정치기반마저 흔들리게 되므로 이치와 원리를 알면서도 현행대로 자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고뇌이다. 결국 국가와 민족이 지향하는 원대한 목표보다 실리에 집착하는 몇사람의 정치 형태가 오늘의 할거주의를 낳은 것이다. 국가는 다양한 지역사회가 결합한 정치공동체이다. 여러개의 정관지로 모여 온돌방을 매우며 지역의 집합으로 국토를 이룬다. 그러므로 지역은 통치의 편의를 위해 국토를 쪼갠것일므로 장관지의 이음새와 다름이 없다. 이음새가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로 비유한다면 실질공간의 경우 산맥과 강을 이용하여 차단과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부·군·현의 행정단위가 적용된 과거일수록 경계안의 통제력과 속박력은 강화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로 이어져 소백산맥 줄기를 영남과 호남의 경계로, 금강을 호서와 호남의 경계로 각각 삼고 있다. 산지와 강은 교통소통을 장애함으로써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했던 까닭에 행정적 통제력을 강화하면서 폐쇄공간으로



로 남게한 요인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고유산 자연에 적응하면서 역사의 발전속에 국토안의 고립된 소우주로 남아 있게 했다. 이것은 이웃의 군현을 의식하면서 경쟁에 기초한 공존보다 배타심으로 동진 폐쇄집단을 낳게한 배경이 되었다.

여기에서 현대사가 빛어낸 정치적 갈등, 경제적 불균형 정책이 지역감정을 부추기게한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지역대립은 이번에도 예외없이 정치세력으로 표출되어 부상을 중심으로 신한국당이, 광주를 중심으로 국민회의가, 대전을 중심으로 자민당이 지역독점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은 실질적 경쟁이 없는 정치세력이 지역분할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종전 같은 정치분할의 땅에는 정책지구를 두어 상대당의 열광을 세워주는 관대함을 보인 것이 관행이다. 오늘이 정치현실은 그런 오류는 고사하고 독점을 의식한 안락의 손잡아져 갔을 것이다.

지역을 방에서처럼 더 이상 쪼갤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을 때 최소지역이 된다. 선거구는 여러개의 시군을 인위적으로 합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지역주의는 같은 선거구안에서도 작용한다. 다른 군 출신을 배척하고 우리 군 출신을 당선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속주주의에 근거한 지역공공체제의 뒷안가 보다. 여기에서 철쭉주의가 작용함으로써 선거를 치를때마다 표를 둘러싼 주민간의 갈등과 반목이 지역화함을 해지고 있다.

조선조 후기 불당정치가 판을 치던 무렵 백리지를 집필한 이종환은 사람이 살 만한 조건으로 먹여주는 인심을 꼽았다. 경제적 여유로움과 다르다. 오늘의 정치 세력이 지역분할되고 상대를 모르고 의사 표현을 뒤흔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관지를 지역에 비유할 때 온돌방 자체는 국가에 해당된다. 장관지의 빛깔이 화려하다하더라도 도배한 방바닥의 부분에 다름이 없다. 가족 모두가 안경된 자세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따스한 방으로 기능하면 죽한 것이 국가 입장이다. 따라서 크고 작은 지역이 장관지처럼 수평적으로 평화되고 있음을 의식해야 한다. 대단한 위치의 수 많은 지역은 상호의존적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은 존재의미를 상실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를 살려 지역간에 배타적이기보다 선의의 경쟁으로 공존공영의 길을 모색할 때이다.

사설

논의와 동의가 선행돼야

본교가 추진중인 새로운 캠퍼스 건립계획이 가시화됐다. 지난 18일 본교는 고양시 식사동에 30만평 규모에 달하는 대학타운의 건설을 주요골자로 하는 '통일시대 대학타운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오는 2002년까지 7만5천여평부지에 6백여억원을 들여 대학시설을 건립, 서울캠퍼스의 공과대·이과대·생명자원과학대등 자연과학 관련학과 이전, 더 나아가 2010년까지 15만여평으로 부지를 추가 확보해 컴퓨터·정보산업등 산학협동체제 구축 및 2006년까지 1천병상 규모의 양·한방 종합병원 건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학교당국이 이미 전국 대학가에 불고 있는 교육개발을 대비해 나름대로 발전방향을 계획·확정·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 구성원간의 논의와 동의의 과정이다. 우리는 지난해의 학부제 시행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을 기억한다. 학생들의 문제제기로 인해 심각한 혼란을 지른 학교가 이것을 '결합화'시키지 못하고 일방적인 대외 발표를 강행한 것에 대해 몹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번 학교측의 발표를 접한 동국인들간에는 이번 계획이 과연 순조롭게 실행될지 자체도 의문이라는 얘기가 떠돈다. 이 역시 학교측이 지금까지 보여준 주요 정책집행의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들간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노력을 충분히 경주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증거이다.

새로운 캠퍼스 얘기가 지난해부터 거론되었다는 측면에서 이번 발표에 발끈하는 학생측 역시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학교측에서 설령 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장 파행적 대립으로 치닫지 말아야 하겠다. 쌍방이 이제라도 진지한 논의의 자리를 강구하는 절실한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지난해 학부제 문제가 등록금폭등등 매년 학교와 학생들간에 합리적인 논의의 구조를 일구어아할 기회에 실질적인 성과를 획득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대안있는 반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가 추진하는 계획이 무조건 반대하기 이전에 그 대안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통일시대 대학타운 건설플랜'이라는 새로운 계획이 발표됐다. 지금이라도 학내 구성원간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하고 보다 신중하고 치밀하게 추진해야 할 것은 추진해 내실있는 결과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동국안정

김성수



동대 야구부

인간의 가치를 새롭게 실현하는 기업 - 現代

우리는 인터넷 입사동기!

언제나, 어디서나 두드리십시오
現代의 문은 전세계를 향해 항상 열려있습니다

이제 세계 어디서나, 24시간 언제라도

現代와 만날 수 있습니다.

전세계를 연결하는 컴퓨터 통신망 인터넷을 통해

그들의 최신 정보서비스제공은 물론, 사인 채용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Global Network를 기반으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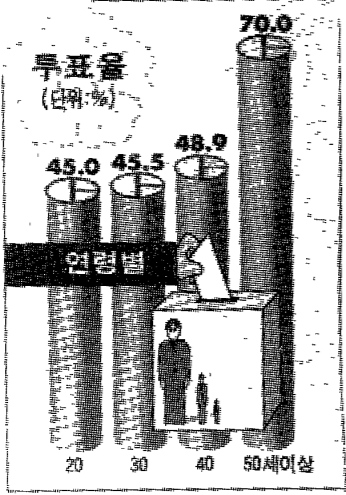
해외정보망 구축, 활발한 현지 생산기점 활용으로

세계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21세기 정보화시대를 現代가 선도하겠습니다.



2대 투표율 왜 저조한가



개인주의·정치불신
이제는 그만

“모처럼 얻은 휴일이야 친구들이랑 유원지로 놀러갔죠. 정치에는 별 관심 없어요” 이번 4·11 총선에서 투표권을 포기했음에도 아무런 꺼리낌없이 한 학우가 이야기한다.

역대 총선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막을 내린 이번 선거에서는 63.9%라는 현저히 낮은 전체 평균 투표율 못지 않게 20대의 투표율이 우리의 눈길을 끈다. 50%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45%. 연령별 투표율을 살펴볼 때 가장 낮은 수치다. 선거 결과 이번 총선에 가장 정점이 되었던 수도권 지역에서 아당성향이 강한 20·30대의 젊은층의 이같은 낮은 투표율 때문에 여론이 강세를 나타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이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이처럼 20대의 투표율이 낮아진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로 위에서 이야기한 학우처럼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흐르는 신세대의 정치 무관심을 들 수 있다. 18세 이상 투표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까지 내 신세대의 정치참여 의지를 보여준 것에 비하면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는 부분이다. 둘째로 정확히 비리사건이나 공천권형 사살 등이 정치자들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혔고 이로 인한 정치에 대한 불신도 원인이다. 셋째로 너무나 강력한 지역주의가 투표의욕을 저하시켰다는 평가와 또 지방유학생의 경우 부재자 투표 신청의 번거로움을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몇몇의 학우들은 투표율 하지가 않은 것도 ‘이유없는 항변’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하는데 이것 역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목소리다.

어느 연령층이나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 또 단순한 공익방송만으로도 투표율을 끌어올리기에 역부족일 정도로 팽배해 있는 정치적 무관심과 불신공조를 조장한 정치권에 일차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21세기를 준비하는 총선이라는 의미에서 한세기를 짊어 나갈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가장 저조했다는 사실은 진정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총선결과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다가오는 대선에는 젊은층이 높은 투표율을 나타낼 것을 기대해 본다.

(양지연 기자)

◇ 구국의 햇볕 제9기 서총련 출범식

“반미·반김·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박병언 의장 웅립...짧은 준비기간 아쉬움 남아

“전대협 한총련 10년의 역사를 앞서는 세기의 선도자, 투쟁으로 애국하는 조직 서총련 40만 청년이여! 미원의 혁명은 계속되고 있으며 자주시대 새날은 그대의 두주먹에 있다. 일어나라 청년이여 투쟁하라 서총련이여!”

제9기 서울지역대학 총학생회 연합(의정=박병언 연세대 총학생회장 이하 서총련) 출범식이 ‘기여교 열사의 피값을 받아 내리라는 기조 아래 지난 19일 본교 대운동장에서 치러졌다.

박병언 서총련 의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부정부패의 독재정권, 미제국주의의 협박한 김일지언정 계속 전진·투쟁의 결의로 96년을 열어 쫓아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축출을 이어지는 조국의 역사, 학살과 폭력 민중수탈의 역사는 더 이상 민중의 역사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미제국주의와 독재정권에 투쟁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조국통일의 결집을 위한 김정권 타도의 의사를 밝

힌 뒤 ‘민중자주, 조국통일, 민주정권’을 외치며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서총련 학우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투쟁!”이라는 8천의 힘찬 함성으로 출범식은 시작되었다. 정병기 한총련 의장의 “계속되는 열사의 죽음앞에 오늘의 출범식은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며 단순한 추모가 아닌 투쟁의 의지로 반미반김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는 연대사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김일기 환영사와 본교 황인규 부총학생회장의 환영사 뒤에는 서울연합의정의 “서총련 출범을 축하하며 구국의 햇볕을 밝혀주기 바란다”라는 연대 발언 등으로 사전마당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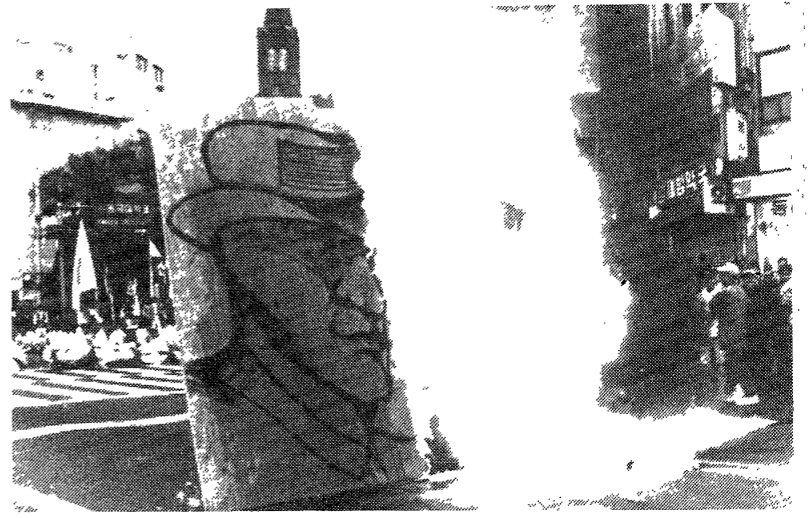
본 마당은 안상욱 서남총련의장(단국대 총학생회장)의 사회로 △1마=더이상 죽이지 말라 △2마=부활하라 열사의 △3마=열사의 피값을 받아내라 △4마=우리에겐 남은 건 전진·투쟁 뿐이다 등의 4개의 작은 마당으로 나뉘어 펼쳐졌다. 노수석, 진

철원, 권희정, 황해인 4명의 열사를 위한 추모시 낭송과 영상으로 보여준 서총련의 투쟁모습은 8천 학우들의 분위기를 숙연하게 했으며, 96학번이 투쟁기간에 느낀 점을 총화하는 마당에서 한 새대기가 “의장님은 나의 빛입니다”고 말해 환호를 받기도 했다.

뒤이어 유병문(본교 총학생회장) 한총련 조동위위원장의 “한반도의 긴장고조, 전쟁피해를 보이는 미제를 축출하고 연방 조국 통일을 건설하자”며 “열사의 뜻을 이어 김영삼정권을 타도하자”는 발언이 있던 후 서총련 의장 웅립식이 전개됐다. 무대 한쪽 끝 시인인 박소리와 함께 북춤이 시작되고 김춘과 파이썬이 펼쳐지는 한편 ‘미제축출 김영삼 타도’라는 글자에 불이 붙여지면서, 햇볕의 길 사이로 서총련 의장이 등장했을때 웅립식의 열기는 한층 뜨거워졌다.

박병언 의장은 “열사의 죽음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서 “그러나 민족의 뜻, 민중과 함께하는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투쟁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며 “5월9일 대선자금공개 교육 재정확보를 위한 서총련 투쟁본부 발족할 것” 등의 투쟁계획을 밝힌 뒤 출범선언문 전문을 낭독하고 뒤이어 출범식폐회를 선언했다.

이번 출범식은 당초 본교에서 개최하기



◇ 서총련 출범식 사진행사로 추모무대에서 ‘문민정부’ 화형식이 진행되었고 학생들은 이후 대운동장에 집결해 출범식에 동참했다.

로 결정되었으나 노수석사건 이후 연세대로 장소가 변경된 바있다. 그러나 여러 상황이 겹쳐지면서 출범식 5일전 본교에서 치투기로 급박하게 결정되었다. 이에 대해 황인규 부총학생회장은 “처음의 계획대로 추진된 것이며 짧은기간이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3백여 명이 불이 붙어지면, 햇볕의 길 사이로 서총련 의장이 등장했을때 웅립식의 열기는 한층 뜨거워졌다.

실제로 7시로 잡혀진 출범식이 진행도중 계속 늦어졌으며 문예단의 공연에도 준비미흡의 허점을 보이기도 했다. 그에 따라 출범식 도중 귀가하는 학우들의 모습이 보였고 11시 넘어 끝까지 함께한 인원은 시작할 때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아쉬움을 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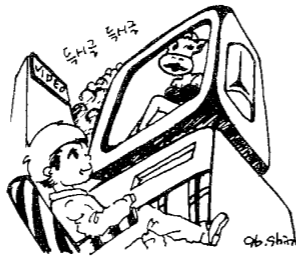
한편 출범식 준비와 더불어 각종사건과 그림, 조형물을 이용해 펼쳐진 △열사의 거리 △서총련과 한총련 역사의 거리 △학원자주화의 거리 △반미 조통의 거리 △4·19거리 △문민파산의 거리 등은 민해광장에서 대운동장까지 이어져 학우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4·19 거리 선전에 자방단 활동을 한 심지현(교육1)양은 “4·19에 대해 다시 알게 되었고 역사 바로보기가 매우 중요한가를 느꼈다”며 “시련기간 중이라 다소 부담되기는 했지만 선배·동기와 일하며 하니 힘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제9기 서총련 출범식은 끝났다. 그러나 구국의 햇볕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40만 청년의 가슴에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해 본다.

(김기영 기자)

동악로

젓소부인



“김밥부인 열구리 터졌네”, “파배기 부인, 풀렸네”, “만두부인 속 터졌네”... 학교 앞 B비디오방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우스꽝스럽다 못해 황당한 제목들의 비디오 시리즈들이다.

요즘 학교 앞 비디오방에는 지난해 말부터 알게 모르게 비디오시장을 강타한 젓소부인 시리즈(5편까지)와 그 아류작들의 끝없는 출시와 수요자의 부름(?)으로 때어난 예로 들 전성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쇼걸, 리허설, 육보단’ 등의 극장개봉 예로들의 가세로 가히 대학가 비디오 문화는 예로들에 의해 단숨에 평정되어 버린듯한 느낌.

실제로 후문 앞 비디오방 두곳의 4월 인기비디오 순위에서도 ‘쇼걸’이 당당히 1위 ‘리허설’ 4·5위, 육보단 10위등으로 상위권에 예로들이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이러한 대학가의 예로물 인기를 반영하는 듯하다.

이에 후문 앞 모비디오방 주인아저씨는 “젓소부인 시리즈를 비롯한 그 아류작들은 학생들이 많이 찾으니깐 안 갖다 놓을 수 없다”며 그러나 “어

쩌다 호기심으로 볼 수는 있지만 젓소부인 시리즈들을 계속 찾는 학생들을 보면 한심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며 선배로서 안타까운 마음도 밝힌다.

우리 사회는 옛부터 ‘성’을 은밀하고 조심스러운 것으로 다루어 왔었다. 때문에 ‘성’에 대한 호기심을 예로물 포르노물 시청, 그것도 은밀한 ‘비디오방’에서 그것을 감상(?)하는 것으로 자신의 기호를 만족시키곤 했다. 그래도 우리사회에서는 얼마간은 ‘성’에 관련한 담론화, 개방화가 어느 정도 되어있다는 대학가에서조차도 그러한 현상은 예외될 수 없겠단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성담론화’는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대학생들이 자신의 ‘성’에 대한 호기심을 언제쯤이나 자유로이 표현하게 될까?

술에서 예로물 보는 문화보다 차라리 ‘성’에 관한 담론을 공론화시킬 수 있는 사회가 좋지 않을까?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서 찾아가던 모비디오방의 신입생 아르바이트생의 말이 떠오른다. “젓소부인도 지금도 많이 보고 있는걸요!” (이영규기자)

본교 장애인 학생의 현주소

강의실 이동·식사할때도 어려움 많아
주위를 둘러보면 바로 우리곁에

지난 2월 23일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쓴 두 학생의 일화는 우리의 가슴을 훈훈하게 만든다.

산업공학과를 나란히 졸업한 홍정원, 오종권군이 바로 그들. 두 학생은 손발이 들어가고 언어표현마저 제대로 할수 없을 정도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이다. 그러나 교내에 사용중인 전산프로그램이운데 이들의 손을 거쳐 탄생된 프로그램이 십여 개에 달할 정도로, 재학생들중 이들의 학업에 대한 열의와 정성은 대단했다. 또, 홍군은 자신의 불편한 몸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화통어리 ‘손짓사랑회’에 가입, 듣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4년동안이나 자원봉사를 했다고 한다.

“나-남-다른 추-억과 고통-이 많아서... 모든게 사회생-활에-도움-이될것 같아-요” 그들의 졸업소감은,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절실히 노력한 학생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본교에 홍군과 오종권은 영광의 학사모를 꾸꾸며 학업을 매진하는 장애인 재학

생은 상당수에 이른다. 그러나, 자가차량을 이용해 본교에 등교하는 학생의 수는 8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학생들은 불편한 몸을 의지하며 동대입구의 가까운 언덕을, 후문의 수많은 층계를 매일 올라야 한다. 등교이후에도, 장애인학생에게 고통은 계속 이어진다.

본교에 재학중인 한 장애인 학생은 “수업시간이면 다음 강의를 위해 이동할 걱정에 집중이 안되고 간신히 강의실을 옮기고 나면 온 몸이 땀에 흠뻑 젖는다”고 호소한다. 또 손이 심하게 떨리는 한 학생은 “스스로 식판을 날라야하는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기가 어려워 매일 점심은 굶는 형편”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시설사용의 불편함보다 더 큰 고통은 자신들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는 친구들의 시선이란다.

실제로 장애인 특별입학을 허용한 6개 대학의 장애인 학생 백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 ‘시설사용의 고통’과 함께 부각된 내용은 ‘친구가 없었더라’다.

학우들에게 바라는 그들의 꿈은 너무나 소박하다. “동등한 자격으로 눈을 마주하며 고민을 털어놓고 들어주는 진솔한 친구”를 그들은 바란다.

본교 장애인 학생들에게도 걸출할 수준의 장애인복지정책속에,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 수는 적지않다. 전체전구 50명중에 한명꼴인 95년 6천명으로, 이들을 상당수는 평생 밖을 나갈수 없을 정도로 중증 장애인이다. 또, 장애인 고용의 불균형으로 이력인세처럼 노점을, 또는 구걸을 하다 이틀없이 죽어간 장애인 수도 부지기수다. 이들의 경우를 들어, 본교의 현황을 ‘배부른 소리’라고 치부해 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교 장애인학생은, 우리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친구이며 그 노력은 조금만 신경쓰면 이를 수 있다.

“나-남-다른 추-억과 고통-이 많아서...”라는 홍군과 이군의 졸업소감은 무심코 장애인의 날을 지나쳐 버린, 우리에게 조그만 반성을 일깨운다.

(한누리 기자)

인간위주의 경영 - 선경 휴머니지먼트

HUMAN MANAGEMENT

96 신입사원 옥주현
(주)선경 화학1본부 근무
파이오니아 포스트가 되어 유럽지역의 전문가로
일하기를 꿈꾸는 신세대 여장부

선경은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들이 선경을 키웁니다

선경에는 인재들의 자기발전 기회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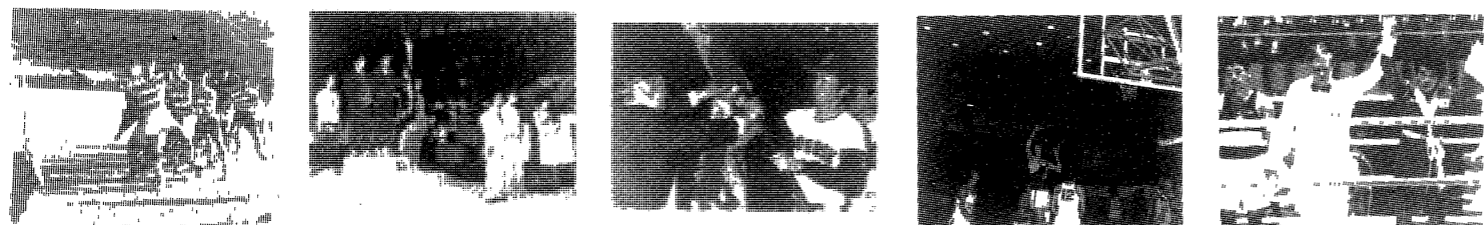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세계 30여개국에서 최고 한달여 동안 실시하는 ‘신입사원 해외전지훈련’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원을 선발하여 1년간 해외에 파견, 현지 전문기로 키우는 ‘파이오니아 포스트(Pioneer Post)’

2000년대 경쟁우위를 갖춘 차세대 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해 해외 비즈니스를 연구기관 등에 파견, 육성하는 ‘장기 해외연수 Program’

96 신입사원 남정현
(주)유공 재무회계팀 근무
사내기업가제도를 통해 10년 후 사장이 되겠다는
표부를 가진 담찬 새대기

SUNKYONG
鮮京그룹



← 왼쪽부터 럭비, 레슬링, 야구, 농구, 복싱

1950~1980년대까지 간추려 본 체육부의 활약사

◇ 체육부 상황과 전망 전망

다시 정상을 향해 도약하는 체육부
지원확대와 행정조직 개선이 급선무

1950년대 럭비계 정상, 85년 대학 연맹농구대회 우승, 85년~87년까지 매년 한 대회이상 우승차지한 야구부. 그리고 96년 야구 우승, 10여년간의 침체를 깨고 동대 체육부는 부상을 꿈꾸고 있다. 이에 이들의 현상향과 과제를 알아본다. (편집자주)

본교 체육부(부장=정창현)에 대한 동국인의 관심이 야구부 우승을 계기로 높아지고 있다. 과거 80년대의 전성기를 다시 찾으려는 체육부의 현상향과 문제점을 살펴보자. 지금 체육부 선수는 야구부 32명, 축구부 31명, 농구부 13명, 레슬링 2명, 승마, 스키부 각 1명씩 80명이며 이중 대표급 선수는 축구부 이상현(일문·3)을 포함해 4, 5명이다. 이들의 주생활공간은 금강관으로 7, 8명이 한방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간단한 트레이닝도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또 운동부의 연습장소는 야구부의 경

우는 일산야구장, 축구부는 대운동장, 농구부는 체육관이다. 이런 체육부에 대한 학교측의 지원 상황은 타대학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작년 승석구 총장이 부임하면서 체육부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많아졌다. 작년에 1억여원을 들여 공사한 금강관은 공간이 협소한 점을 제외하고 여러 제반 시설은 타대학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또 "올해의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작년보다 많은 지원으로 선수를 연습장과 관리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덜게 되었다"라고 현재 학교의 지원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 밖에 학교측은 이번 야구부 우승에

대해 송출장으로 부터 급일봉을 전달하기도 하며 '운동인의 밤'을 가져 여느때의 우승한 운동부만의 행사를 지양하고 모든 체육부원이 모인 가운데 선수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학교측은 이번 여름에는 선수들의 사물함도 교체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학교측은 예전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체육부를 바라보고 지원과 관심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체육부 발전의 걸림돌은 여전히 산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학교측의 충분한 지원과 행정조직개선이 안되고 있는 점이다. 우선 학교측의 지원이 많아져야 우수한

선수들을 유치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본교 선수 스카우트방식은 체육부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본교에 입학할 유도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체육부 관계자들은 "스카우트 할 때마다 타대학이나 프롭팀이 제시하는 비용때문에 우수한 선수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정말 이럴때는 허무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한다. 또 어렵게 스카우트한 선수에 대한 학교측의 지원은 너무나 미흡하다. 현재 본교는 선수 한명당 1년 등록금, 식비 등을 포함해서 7백여만원의 비용을 사용하고 있어 타대학과는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부장, 계장 단2명이 체육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외부의 큰 경기가 있는 날이면 허덕일 일도 증단하고 때때 후일도 없이 외부로 나가야 할 형편이다. 매일 일과 파고라 쌓이는 실정 때문에 "매번 직원을 늘려달라고 학교측에 요구하지만 잘 안되고 있다"며 체육부 관계자는 일의 버거움을 이야기했다. "지원들의 구성면에서도 실제로 운동경험이 있는 체육부의 감독, 코치 등이 직책을 맡겨지면 업무면에서의 능률과 애교심도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체육부는 9년만에 승전보를 울렸다. 다시 정상을 향해 도약하는 체육부가 빨리 정상을 찾기위해서는 앞서 말한 문제점들이 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태훈 기자)

지방색 나쁜가



정 남 기

4.11총선 결과를 놓고 여러 말들이 무성하다. 언뜻봐서 실망스러운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말았지만 그동안 우리의 정치문화 수준으로 보면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반드시 떨어졌어야 할 후보가 당당하게 뽑히고 그 반대로 승리할 것이라 예상했던 지역구들이 신인에게 석패한 사례가 쏟아지지만 지역주의의 투표성향을 어찌했는가. 문제는 지역구득표자의 갈수록 생활하게 살아나고 고착화되어가는 추세일 것이다. 다음세대를 위해서라도 이제 지역문 제만큼은 솔직히 필요 있다. 그것이 어디에서 연유했는지 그것 때문에 과연 어느정도의 혜택을 누려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데 이따가 됐는가. 지역문제는 단순하게 하자는 정서 혹은 감정차원의 일이 아니다. 갈등의 본질은 정치결정적 이해의 대립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회문화적 갈등은 그러한 갈등에서 어쩔수 없이 파생된 것이고 그 갈등들이 쌓여서 방대한 지역정서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지역구득표에 힘입어 탄생하여 지명했던 역대정권당파와 그 주변 기득권세력의 묶음은 논리는 지당한 말살이고 만만한 유권자들을 상대로 감정을 버리고 갈등을 해소하라는 따르겠다는, 자기들은 즐기면서 총내내 내내 나쁘다는 식이다. 지역주의에 젖어든 유권자의 투표성향은 내지역 정치인인 권력을 잡아야만 지역발전과 내 이익에 부합한다는 현실을 올바르게 양산할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역사가 이를 확연하게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지역감정의 대안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권력자들이 마음먹고 결단타파에 나서면 가능하다. 대통령이 나 장관, 그밖의 기득권층에서 볼 수 있는 우리역사가 이를 확연하게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지역감정의 대안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권력자들이 마음먹고 결단타파에 나서면 가능하다. 대통령이 나 장관, 그밖의 기득권층에서 볼 수 있는 우리역사가 이를 확연하게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지역감정의 대안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권력자들이 마음먹고 결단타파에 나서면 가능하다. 대통령이 나 장관, 그밖의 기득권층에서 볼 수 있는 우리역사가 이를 확연하게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고지은 기자)

◇ 체육부 명성 부활을 꿈꾸며

동국인의 관심과 선수들의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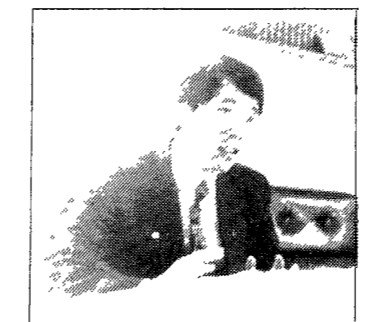
동국인들은 동대야구부 전성기를 구가하던 80년대 중반의 향수를 잊지 못한다. 동대운동장과 함께 승전보를 알리며 동대야구부에서 본교까지 가두정신을 벌이던 흐트러진 추억. 이들에게 지난 12일 춘계리그 우승 소식은 얼마나 값진 선물이었는가는 재차 질문할 여지가 없다. 웰레비전을 통해 프로야구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을 지켜보며 옛 향수를 달래던 그들에게는, 80년대 중반 동대야구의 전성기를 이끌던 선수들은 현재 프로에서 맹활약중이다. 이들은 동국인들에게 프로야구를 보는 재미를 한층 더해 준다. 7년연속 두자리 승수를 올리며 1백승 고지를 향해 전력부구를 하고 있는 해태 타이거즈의 이강철선수를 비롯 팀내 에이스로 자리잡은 송진우(한화 이글스), 박준태(LG 트윈스), 백인호, 박철우(이상 쌍방울 레이더스), 이종화(삼성 라이온즈), 이진열(해태), 가덕영(롯데 자이언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량을 닦고 있는 선수들, 이들은 기라성같은 선배들이 이어온 동대야구의 명성을 지키며 동국인들

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성환(지도자 수업중), 한대화(LG), 김민호(롯데), 정구선(현대 유니콘스 코치)등 한국 야구사에 한 획을 그으며 한시대를 풍미했던 선배들의 명성에 버금가는 활약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뒤이어 현 본교 야구부는 부활을 예고 했다. 대학야구 춘계리그에서 우승을 일구어내고 각종수상을 휩쓸는 등 저력을 발휘했다. 최근 대통령기 대회 16강전에서 영남대에 10:8로 겨우 어렵게 탈락했다는 불행한 소식이 전해지지만 그들은 이미 동국인들의 단합과 '동국'의 가능성을 확인시켰다. 동대야구부에 5천여 동국인을 집결시킨 그들의 승리는 그들의 승리가 아님을 보여줬다. 학교당국도 인식의 변화가 오고 있다. 비단 야구부 뿐만이 아닌 동대 운동부는 '동국'의 발전을 위해 복무하는 일꾼들이라는 점을 인식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들의 분야에서 동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일이다. (김희동 기자)

◇ 체육부 부장 정창현씨를 만나

“선수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성적관리” 가능성과 잠재력 가진 선수들의 활약기대

실로 9년만에 본교 야구부가 전국대회 우승을 함으로 모든 동국인이 흥분했다. 이로 인해 체육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야구부를 비롯한 축구·농구·레슬링·사격부의 상황을 체육부 부장 정창현씨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12일 야구 우승으로 인해 특별한 행사나 계획이 있을 듯 한데, =야구 후일회(회장=정용길·행정대학원 일강)에서 야구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5일 엠버서더 호텔에서 전 운동부 선수와 총장님, 후원회장님을 모시고 '운동인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격려사와 급일봉 전달이 있었다. -현재 축구부와 농구부 상황은 어떤가, =한마디로 예기해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은 가지고 있으나 당장의 우승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다. 축구부는 80년대 중반 이후 큰 활약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학 50개 이상의 팀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승 진출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별 순위 상승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쯤에는 성과를 기대해 볼만하다. 농구부 같은 경우 92년 이후 팀결성 자체가 어려웠다. 올해 선발한 신입생 8명과 기존 5명 선수를 포함해 비로소 완벽한 팀을 구성해 훈련을 하고 있다. 신



입생 위주의 경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이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다른 부는, =레슬링부나 사격부의 경우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태생수준에 있거나 개인훈련을 하고 있다. 사실 본교는 개인 종목보다는 구기 3종목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종목은 체육대학에서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때문이다.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상황은 어떤가, =기본적으로 기숙사, 체육관, 야구장이 있다. 금강관에 11개 방을 갖춘 기숙사와 기본체력 훈련을 위한 트레이닝실, 샤워실, 식당시설이 갖춰져 있다. 야구부의 경우는 본교 일산 농장에 위치한 야

구장에서 연습한다. -스카우트에 관해서, 축구부 윤근호 선수는 타대학에서 많은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교를 지원했다고 들었다. 선수 스카우트에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특별한 불량이나 금전적 지원 보다는 특정 학교와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통해 학교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야구의 경우 동산·배명·광주상고 외, 축구의 경우 부평·중동·경희고 외 몇몇 학교와 지속적인 연계를 맺고 있으며, 본교 출신 고교감독들의 추천에 귀를 기울인다. -운동부 선수들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성적부진을 많이 신경쓰는 것 같다. 계속되는 대회와 훈련으로 수업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이 학생으로서 심적 부담인 것 같다. 83년도에서 87년도까지 본교 운동부는 전국대회 우승을 여러차례 석권하면서 떠들썩한 응원가와 함께 그 기상을 크게 떨친 바 있다. 지금과는 다소 비교되는 상황이지만 하나 잠재력을 가진 선수들의 선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대해 볼만도 하겠다. (고지은 기자)

이 감격을 거듭 누리기 위해 -본교 야구부 후원금 모금에 동참을 기다립니다- 자랑스런 동국야구선수단 (Table with columns: 위치, 배번, 성명, 생년월일, 신장, 체중, 학년, 출신교) 삼성 센스 노트북 PC 배부안내 (List of items and conditions) 외국어 교육원 특강안내 (List of courses and fees) 동국대학교 야구부 후원회 (Contact information for 1996년 4월)

◇서평- '패스트푸드점에 갇힌 문화비평'

실체 없는 이미지 속에서의 대중문화 비평

자신이 이끌어온 지적 풍토 회의에서 시작한 자의식 반영

비평의 맛은 아무래도 직설의 쾌감이다. 그렇듯하게 발명된 스토리 뒤에서 우회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픽션에 비하면 화자의 속내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평은 그래서 현실과의 정면 대결이다. 점잖은 해석자들보다 눈에 사나운 싸움꾼이 더욱 간절한 것은 소위 90년대적인 문화 현실 때문이다. 광고, 영화, 뮤직비디오 같은 대중 미디어는 맹렬한 속도로 세상을 온통 실체 없는 이미지들로 채워가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문화와 이미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디어의 가공할 흡입력은 자신에 대한 '비판'까지도 또 하나의 이미지로 전락시켰으며, '비판'은 활동성을 거세당하고 급기야 '패스트푸드점에 갇혀' 고급한 문화상품으로 팔려나가는 수모를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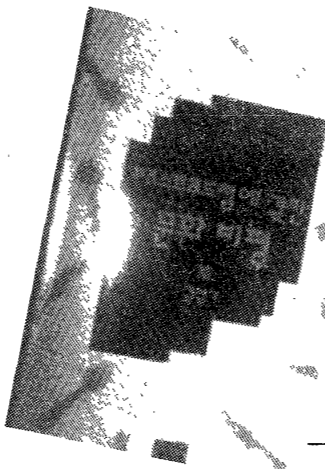
대중 미디어가 만들어

가는 실체없는 이미지

저자는 90년대 초, 이념의 해체 위로 유행처럼 떠돌던 포스트모

니즘에 관한 논쟁의 주역 중 한사람이다. 그는 김옥동, 강내희 교수 등 처음 논쟁을 주도하던 영미문화 연구자들에 맞서 사회과학적 관점을 견지하며 인식의 폭을 넓히는 데 한 몫을 했으며 그 성과를 모아 '포스트모더니즘과 비판 사회과학' '모더니티란 무엇인가'를 펴낸 바 있다. 그는 특히 가장 앞서서 새로운 영역에 뛰어든 제1세대 대중문화 연구자에 속한다. 이제 그는 자신이 선두에 서서 이끌어왔던 하나의 지적 풍토를 회의하기 시작한 것 같다. '패스트푸드점에 갇힌 문화비평'은 그러한 자의식의 반영이다.

"우리가 리얼리티라고 믿고 있던 대상이 더 이상 리얼리티가 아니라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힘이 작동하고 있기에 이제 우리는 리얼리티를 구성하는 원칙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의 현실은 '불길한 거울의 세계'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화려하지만 텅 비어 있다. 거울의 허상은 현실로부터 시선을 빼앗고 자아가 이미지들의 놀이에 갇혀 있는 동안 일상을 거무스름하게 변색시킨다. 스스로를 회의하기 시작한 대중문화비평가는 이제 새로운 겨냥을 모색하고 있다. 거울상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회피된 진실한 무언가를



◇김성기 저, (패스트푸드점에 갇힌 문화비평)민음사

찾아내어 복원하고자 한다.

거울의 정체를 이해하려는 것이 아닌 그것에 의해 회피된 무언가를 찾는 노력

이 책에는 '세기말 들여다보기' '상황의 도전과 문화의 음전' '지성의 비판주의' 3부까지 다소 이론적인 문화비평의 글과 4부 '스무개

의 거울 조각들' 속에 포함된 가벼운 문화읽기의 글 스무편이 담겨 있다. 비평가의 자의식이 짙게 투영된 그의 어법은 명료한 직설이다. 이것은 아마도 이론과 담론의 말 놀이가 되어 현실의 지평을 잃어버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가 택한 전략인 듯 싶다. 문화비평은 이미 자신이 비판하려던 대상에 전연되어 침몰하고 있으며 그 스스로가 화려하지만 텅 빈 거울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그는 문화비평 뿐 아니라 문화비평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관심을

알어한다. 그래서 이 책은 대중 문화가 아닌 대중문화에 대한 비평 즉 메타비평에 속한다.

오늘날 문화비평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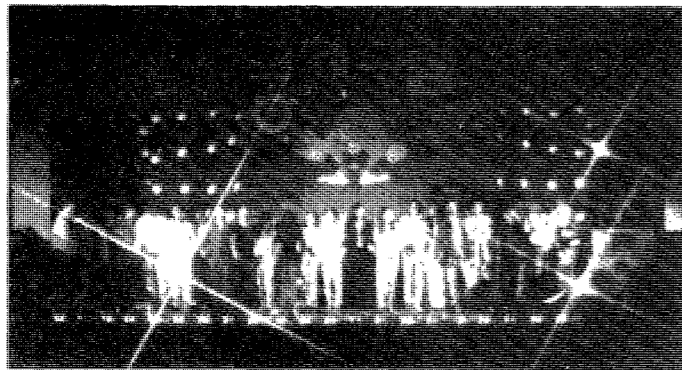
현실 '이성이 잠들면

요괴가 눈을 뜬다'

과연 그는 그리고 우리는 어지러운 거울상을 걷어내고 리얼리티를 향해 한걸음 들어갈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는 법이다. 오늘날의 문화 현실이나 문화 비평의 현실을 빚은 '이성이 잠들면 요괴가 눈을 뜬다'는 말은 물론 의미심장하다. 하지만 무엇이 요괴이고 이성은 또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그의 말대로 간단치 않은 일이다. 여전히 이 책은 문화라는 '리얼리티'가 아니라 문화비평이라는 '거울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가능성도 적지 않다. 우리가 직면한 것은 '문화가 없는 문화비평'이라는 단감한 현실일지도 모른다.

신 동 윤

(대중문화비평가)



동아리 나름대로 독창성을

추구하는 열린 분과

공통과제는 역시 대중성 확보

음악, 연극, 발춤 등 예술을 좋아하고 이를 학우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공연분과 동아리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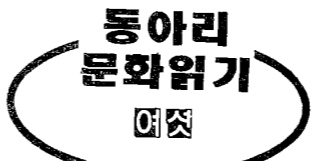
처음에는 통기타 동아리로 시작, 올해로 6기 신입생을 받은 순수 창작 음악동아리 '몽계구름' 또 발춤을 중심으로 공동체 놀이문화 활성을 위해 애를 쓰는 20년의 긴 역사를 가진 '달', 역사와 전통에서 대학 연극 동아리중 자부심과 독자성을 자랑하는 '극예술 연구회', 노래 하나를 부르더라도 만인의 심금을 울리기 위해 노력하는 민중가요 동아리 '아리랑', 가곡과 민요, 뮤지컬, 아카펠라, 불교노래 등 오직 노래만이

로 활동하는 순수음악 동아리 '불교 합창단', 클래식 기타 하나로 레슨받고 연습하는, 직접 연주해 보면 쉽게 매료될 수 있다는 '현여울'이 있다.

이 6개 동아리는 하나로 묶을 수 없는 자기만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같은 음악동아리라 하더라도 한 곳에 치중하지 않고 여러 장르 모두를 소화하는 등 다양성과 자유로운 음악을 추구하는 '몽계구름'이 있는가 하면 판 동아리에 비해 조용한 클래식 음악 하나만을 추구하는 '현여울'도 있다.

노래를 부르더라도 민중의 의식



서울캠 공연분과

을 깨우치기 위해 노력하는 '아리랑', 또 화음을 중시하며 이야기도 노래로 컷만남의 어색함도 노래로써 풀어가는 '불교합창단'도 있다.

연극에 있어서도 한번의 공연을 위해 반년이상을 준비해 식상함을 거부하고 독창성을 중시하는 '극예술연구회'와 생일파티부터 모든 공연을 전통적 공동체 놀이 중심으로 종합예술을 시도하는 '달'도 있다.

이렇듯 공연분과 각 동아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독자성'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공연분과중 이민희(선4)군은 공연분과를 "기성인들의 기준에 맞추

달 하나 천 강 에

'좋은자기 나쁜자기'

살리반(Sullivan)은 인간 존재의 두가지 포괄적인 목표는 '만족의 추구'와 '안정의 추구' 두가지가 있는데 이 두가지는 서로 얽혀 있다고 밝힌바 있다.

살리반이 말하는 '만족의 추구'란 주로 생물학적인 욕구에 관한 것인데 반하여 '안정의 추구'는 본래 문화적 과정에 관한 것으로 그 결과를 의미한다.

그럼 그가 말하는 안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종속관, 곧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감정에 관련된 것이다.

사람이란 출범이후 일정한 문화의 태도가 양친된 그밖의 중요한 사람들의 태도를 통하여 아동에게 다달음을 보아왔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관계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이것을 거쳐왔고 또 잘 순응하여 왔다고 여기기 때문에 거의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젓머이(亂兒)와 어머니 사이에는 언어를 매개로 하지 않는 감정적 교류가 있다. 이점을 동감(同感, empathy)이라고 한다.

즉, 어머니가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젓머이에 대하여 애정을 가질때 젓머이는 안정감을 갖는다. 이것이 젓머이의 '좋은 자기, good me'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탓으로 어머니가 기분이 나빠져서, 어머니의 애정이 한동안 자기한테서 떠나게 될 때, 젓머이에게는 대단한 불안을 가져온다.

젓머이는 이러한 기회를 초래하는 자기의 충동을 피하려고 한다. 거기에서 자기가 아닌것 'not me'이 생겨나는 것이다.

'자기가 아닌것' 즉 'not me'는 의식되어 있는 자기에서 전혀 분리(dissociation)된 자기의 부분이지만 불쾌를 초래하는 자기의 충동 가운데서도 의식되어 있는 자기 가운데 보존되는 것도 있다. 이 보존되는 것이 바로 '나쁜자기, bad me'가 되는 것이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의식된 자기를 살리반은 '자기(自我)체제, Self-dynamism'라고 한다. 자기체제는 곧 자아조직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아동기에 사람들한테서 관동받은 특성이 종합되어진 것이다.

인간은 이렇듯 안전욕구를 매개로 하여 인간세계 가운데로 끌어들여진다. 젓머이 시기엔 어머니에 오로지 관련되지만 그뒤 점차 관련되는 상대가 많아져서 최후인 성인의 사회생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젓머이 시기에 기초가 잡힌 자기체제가 그뒤에 성장, 사회화의 과정 가운데서 변화하고 수정되면서 인간은 인간다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들어 부쩍 '좋은 자기'보다 '나쁜 자기'가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모두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여겨진다.

김 홍 우 연극영상학부교수

내가 만약 LG산전의 사장이 된다면...

S. 신인아

"학교주변 모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전자동회전시스템을 만들겠어요"

산전이라면 가능합니다. LG산전의 기술이 편리하고 멋진 생활을 만들어 갑니다.

조금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한 아이디어는 무궁무진 합니다. 작은 아이디어를 큰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술- 바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 전자 산업을 이끌어 온 LG산전의 기술입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자동판매기 등 보다 편리한 생활을 창조하는 친근한 제품에서 고저압기기, 자동창고, 공장자동화 등 산업을 움직이는 중추에 이르기까지- LG산전의 기술로 우리 생활이 더욱 멋지고 편리해집니다.

전력기기-설비사업 전자기기, 변전기기, 초고압설비,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빌딩설비사업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주차설비, 환기설비 등

제어기기사업 PLC, 인버터, 로봇, CNC, 초음파세척기, 센서/필레이 등

자동화시스템사업 자동창고시스템, 반송시스템, 물류시스템, 분산제어시스템 등

서비스산업기기사업 자동판매기, 쇼케이스, 티켓자동발매기, 차량정비기기, 전동공구 등

LG산전

◇ 학교 수위아저씨들의 고충

학교측의 관심이 필요

정기적으로 검진이라도 이뤄져야

만 19년째 밤낮으로 교내 경비를 맡았던 추연강(56)씨는 불규칙한 식사, 운동부족, 신경성 고혈압으로 하루 5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그는 위장병으로 입원도 했으며 퇴직을 앞둔 수위실 직원들 대부분이 위장병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성구 수위실 직원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학교경비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식사부분에서도 언제 사건이 생길지 몰라 수위실 내서 밥을 지어 먹거나 라면같이 끓여먹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히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학생회관과 본관의 경우가 극심한데, 심야가 돼도 마음대로 잠을 잘 수 없다고 그들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러나 학교측은 건강악화로 정기적인 진료·검진을 요구한 직원들에게 시월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2명의 수위실 직원은 학교대 근무자로 2명이 2일 2교대로 하루 24시간 근무가 원칙이다. 따라서 일주일 평균 84시간을 근무하는 것이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42조 1항 '1일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당사자 합의의 의해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능'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경비직이라는 교체의 특성상 학교내 건물관리라는 막중한 책임, 학교측과 직원간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문제는 비단 신체적, 정신적인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병길 정문 수위실 직원은

"속직비 평일 1만원, 공휴일과 주말 2만원등을 학교측에서 지급한다지만 이는 식대보조비와 다를바 없다"고 말한다. 다른 수위실 직원들 또한 속직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총무과의 한 관계자는 "계약상 1~2년의 계약관계로, 또 예산상 결정때문에 속직비 인상은 불가능하다"며 원칙을 고수했다.

또한 "경비는 특수 상황이고 학교상황과 관련되어 있어 개인적 부분을 조직사회 부분으로 연결짓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임금부분에서도 학교측과 직원이사이에서도 불화가 이뤄졌다.

수위실 직원이 숙한 기능직과 그의 기술직간 호봉의 차는 무려 30만원이나 되며 민주노총이 발표한 14.2%의 물가인상률에 비해 임금은 9.5%인상에 그쳤다. 2년 전 학교측의 임금 15%인상 약속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상률이다.

이렇듯 학교대 수위실 직원들은 행정부에서도 갈등이 많다. 그들은 보통 사무직원들과는 달리 실아노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인간활동 리듬에 역행되며 신체적, 정신적 조화를 잃기 쉽다. 그리고 문화적, 사회적 활동에 커다란 제약 받고 있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계약상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둘째 치더라도 정기적인 무료진료등과 같은 복지시설 개선에서의 학교측의 도움은 수위실 직원들의 정상적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한상용 기자)

총대, 1학기 예산 분배 마무리 단계

각 중앙위간 의견차 조정중

총대의원회(의장=천성국·겸공4)가 주관하는 96년도 1학기 예산 분배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2월말부터 진행된 예산분배 작업은 등록금문제와 노수석군 사망등 학내외 쟁점사안에 밀려 현재 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총대의원회로 구성된 중앙위간과 각 단과대학 생활로 구성된 단과위간의 비율과 원천징수액에 대한 일부분이 확정된 상태고 현재 중앙위간 분배문제와 원천징수액에 해당하는 대동제비용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총대의원회 부의장 최이선 "대동제비용문제는 총학생회의 대동제비용이 완료되는 이번주중 결론이 날것이고 중앙위간 분배문제도 곧 해결이 날것으로 본다"며 차후 "대자보를 통해 결과를 공고 할 곳"이라 말했다. 이어 "이번 단과위 예산이 부족한지 사실이며 지난 2학기 대의원 대회때 학생회비 인상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대화제가 무산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위간과 단과위간의 분배비율은 37:61(2%는 농촌활동추진위원회 사업비)로 확정됐는데 중앙위간으로 배정되는 37%의 분배를 두고 △총학생회=23% △동연=8% △총공=6% △총대=5%를 요구(5% 초과)해 각 단과위간 의견차를 좁히는 중이다. 확정된 원천징수액에 대한 부분은 △선거비용(을 치뤘던 문과대 선거와 예대·사과대 대의원장 선거)=41만원 △한명연등 각종회비=2백7십4만3천6백원 △2학기 선거공정제 비축분=2백5십만원 등이다. 단과위간 분배액 61%는 할당액의 80%를 11개 단과가 같은 비율로 나누며 나머지 20%는 각 단과별 인원에 따라 분배된다.

올해 학생회비(8천원) 납부자는 1만명을 조금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예산분배는 1만명의 금액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2학기 선거공정제비로 공제되어 총 분배액

은 8천만원이다.

생자대, 학생회 선거

지난 17일 생명자원과학부 학생

부처님 오신날 준비 정각원, 5천여개 연등설치

정각원(이법산·선학)은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을 대비해 오늘(22일)부터 정각원법당 및 학교주변에 연등설치 작업을 시작하여 다음달(5월) 3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안중철 정각원 법사는 "이번 연등이 개교 90주년을 맞이하여 모두가 성불하는 지혜의 등, 동국의 하

회 회장 선거일이 확정됐다. 일정은 △21일 5시 후보자 등록 마감 △22일 사전 촬영 △25일 입후보자 공고 △29일 1차 유세 △30일 투표 △5월1일 당선공고로 이어진다.

후보자 등록은 생명자원과학부에 재학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한편 식물자원학과, 응용생물학과, 산림자원학과가 합쳐진 생명자원과학부는 90명의 신입생으로 구성되어있다.

나되는 화합의 등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각원은 매년 이맘때면 불자와 학교측의 지원을 바탕으로 5천여개의 등을 설치하고 있다. 절등식은 내달 7일 예정이다. 한편, 교수불자회 야외법회가 흥천수사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96 상반기 취업특강 실시 많은 학생 참여 필요

취업과(과장=김철석)는 오는 5월 3일 오후 2시 동국관(L501)에서 96년 상반기 취업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재성(매일경제신문 취업뉴스센터 국장)씨를 강사로 초빙한 이번 특강은 8월 졸업예정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에 따른 준비요령과 국내 대기업의 채용정보

등에 대해 강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김철석 취업과 과장은 이번 특강을 많은 장재성씨를 "취업특강 분야에 매우 우수한 강사"라고 소개하며 "특히 8월 졸업예정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제각각... 동국관과 예술문화관 사이 연결계단이 완공됐다. 그러나, 사진처럼 계단 높이가 달라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김희동 기자)

4·19기념 등산대회 마쳐 '동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자'

4·19기념 제27회 동국인 등산대회가 지난 20일 8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산에서 치뤄졌다.

이번 행사는 오전 9시 4·19기념탑 광장을 마련해 4인1조로 구성된 팀들이 대동문 북한산장 위문 하루재도선사에 이르는 산행을 펼쳤다. 도산사 광장에서 있던 시상식에서 대회장인 송석구 총장은 "4·19정신과 동국기상이 한데 어우러지는 의미있는 산행이었으며, 이 의의를 동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자"고 말했다.

수상팀은 다음과 같다. △최고행운상=토목공학과 △최우수상=동대신문사 △우수상=관리처 △김현주팀 유격대팀 △동국90주년상=토목공학과 △동국발전상=교육학과 법학과 △동국사랑상=경찰행정과 교육방송과 지리교육과 아마추어 무선통신연구회 △행정부서특별상=총무처 관리처 기획조정실 △자연보호상=야간 영문학과 경영대학원

신입생 독후감 시상 최우수상에 최도영 등 6명 수상

신입생 과제부 과장 '독후감쓰기'에 대한 표창이 오늘(22일)교무위원회의실에서 있었다.

추천도서 6권중 1권을 선택해서 제출하는 독후감은 신입생 총2천8백90명중 1백86명이 제출한 가운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이 선발됐다.

심사는 책내용에 대한 이해와 감상수준, 어휘력과 문장표현력에 중점을 두었으며, 심사결과 및 표창내역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최도영(국어교육) △우수상=정하연(한국어문학부), 조경미(생명자원과학부), △장려상=이현주(중어중문), 김형일(사회과학계열), 남기용(전자전자공학부) 한편, 수상자에게는 각 10만원,

20만원, 30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이 주어졌다.

학과소식

인도철학과

지난 15일, 소식지 아쉬람 18호를 발간했다.

지리교육과

지난 17, 18일 기초교양을 통해 새내기들에게 4.19혁명, 4.3항쟁등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사건들을 시기적으로 정리 문예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다.

동연, 길거리 농구대회 열어

대중성 있는 90주년 기념 행사 될듯

제12대 동아리연합회(회장=최동현·국공4)는 3·3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5월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실시하는 이번 대회는 '개교90주년 기념행사'로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비는 3만5천원이며 제한인원은 팀당5명으로 오는 30일까지 동연에서 참가신청 접수를 받는다. 1등 트로피 상품권3장 농구공2개, 2등 트로피 상품권1장 농구공2개, 3등 트로피 농구공2개의 상품이 주어지며 대전추첨은 30일 5시30분 동연에서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 대해 체교분과장 이병두(아마추어 농구회 회장·체교4)군은 "개교기념 90주년을 맞이해 기념행사로 대중성있는 길거리 농

구대회를 기획했다"고 말하며 "이번 대회가 개교기념행사와 더불어 동아리 연대활동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예대, 체육대회 개최

예술대(회장=김재영 연영4)에서는 오는 5월 4일, 만해광장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예대인의 화합을 취지로 마련한 이번행사는 매년 치뤄졌으며, 연영, 미술 두 학부의 새내기들의 단결과 단대에 대한 소속감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는 축구, 족구, 배구등의 종목이 있으며 끝난후에는 뒤풀이 행사가 이어진다.



면학의 4월, 진리의 샘물을 맘껏 마시자!

캠퍼스에 찾아오는 봄의 전령은 무엇일까? 한 귀퉁이 조용히 피어난 진달래와 새내기들의 노란 웃음꽃 그리고 겨울의 무거운 외투를 벗어 던지고 진리의 샘물을 마시기 위해 도서관으로 향하는 바쁜 걸음들이 아닐까? 누군가 말했다! 20대의 가장 큰 재산은 돈도, 명예도, 아름다움도 아닌 지식이라고. 인생의 황금기인 20대의 나, 내 지식의 깊이는 얼마쯤 될까? 밤늦도록 도서관에서, 실험실에서 책과 씨름하고 귀가할 때 느끼는 그 기쁨과 환희 또한 대학생의 특권이 아닐까? 울 봄, 진리의 샘물을 맘껏 마셔 볼 것을 굳게 다짐하며 면학의 봄기운이 가득한 도서관을 향해 씩씩한 발걸음을 떼어 본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항제철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철강을 생산하는 기업. 포항제철은 1968년 설립된 이래로 '세계제일의 철강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철강의 선진 기술을 선도하고, 친환경 철강을 생산하며,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다.

영상매체비평

- TV편

얼마전에 종영된 KBS 제1TV의 '바람은 불어도'라는 일일연속극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방송가에 신선한 화제를 몰고 왔다. 우선 드라마 왕국으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고 있었던 MBC 드라마들을 누르고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는 것, 그리고 이 연속극의 성공으로 인해 80년대 중반이후 한동안 일일연속극 제작을 중단해 왔던 MBC가 다시 일일연속극 제작에 나서게 만들었다는 것, 또 각 방송사에서 '바람은 불어도'의 오류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일일연속극을 연달아서 제작하게 만들었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바람은 불어도'는 3대가 한지붕 아래 모여 사는 대가족을 주인공으로 설정해놓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사들을 아기자기하게 전개시켜 나갔던 드라마이다. '바람은 불어도'는 이처럼 실제 현실에서는 점점 사라져가는 대가족제에 내의 살림살이를 다시 TV화면 내에 불러들여 시청자들의 아련한 향수를 자극함으로써 치열한 시청률 경쟁에서 패자를 거두었다. 조금은 주책스럽고 재미 없는 할머니, 어찌보면 외골수다 싶은 정도로 성실하고 정직하기만 하며, 가장으로서 느끼는 여러 가지 중압감과 고민하는 아버지, 각기 개성이 강한 아들들, 전통적인 며느리상과 현대적인 며느리상을 놓고 보여주는 며느리들, 이들이 서로 얽혀 들어가며 엮어내는 잔잔한 일상의 물결들은 총격적이고 비일상적이며 비현실적인 소재와 주제로 점철된 TV 드라마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소박한 아름다움으로 빛을 발했던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각 방송사의 지대한 관심을 끈 것은 '바람은 불어도'의 예상치 못한 높은 시청률이었다고 이런 관심은 각방송사가 '바람은 불어도'와 유사한 일일연속극 제작

현실 무시한 일일 가족드라마 바람 대가족제의 미덕과 가부장적 권위강요



◇'바람은 불어도'의 이류적인 '자반고등어(좌)와 '자전거를 타는 여자'(우)

을 서두르게 만들었다. 그 결과 만들어진 일일연속극들이 MBC의 '자반고등어', SBS의 '자전거를 타는 여자', KBS 제2TV의 '머느리 삼국지'이다. '자반고등어'는 아내를 여의고 홀로 된 아버지와 그 자식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를 흠모하는 카페 마담과 사촌점 여주인 사이의 갈등, 이웃 간에 벌어지는 갖가지 에피소드들을 전개시켜나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자전거를 타는 여자'에는 아주 전형적인 가부장제 대가족이 등장하는데, 이 속에서 나이는 많지만 힘이 없고 남편만 위하는 딸과 철저하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나이 어린 며느리가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며 극의 재미를 유발하도록 장치되어 있다. '머느리 삼국지' 역시 3대가 같이 모여 사는 대가족이 극의 주인공이다. 다른 드라마와의 차이점은 첫째 며느리를 제외한 나머지 두 며느리가 외국에서 시집온 사람으로서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를 넘어서 서로 다른 민족 간의 갈등과 화해까지도 묘사해보고자 하는 야심찬 기획을 했다는 것이다.

일일연속극은 대체로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저녁 시간에 방송된다. 이 시간대는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 방송되는 일일 연속극은 가족구성원 모두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 때문에 일일연속극은 사적인 가정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은 극의 배경 설정을 위해 부수적으로만 묘사된다. 그런 까닭에 현재 방영되고 있는 일일연속극은 전체적으로 극 구성에서 불균형을 노정시킨다. 그런데 이런 극의 불균형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일일 연속극이 주로 치중해서 묘사하는 가정생활마저도 실제 상황과 괴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일연속극에 묘사되는 가족간의 갈등이나 이웃 간의 갈등은 일상에 대한 섬세한 관찰에 토대를 두고 있다기보다는 시청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과장되고 회화화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바람은 불어도'의 성공 이후 연달아 제작되는 일일연속극들을 지켜보며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 일일연속극들이 점차 핵가족 화되어 가는 현실조건을 무시한 채

말알리에 시청자들에게 전통적인 대가족제의 미덕과 가부장제의 권위를 강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최미애 (영화평론가)

문학단신

◇제3회 민족축제전...세계화 시대, 앞서가는 춤을 위한 선언, 푸른 환경 생명의 몸짓으로라는 가치아래 제3회 민족축제전이 열린다.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민예총)과 민족춤위원회 공동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일보사 등이 후원하는 이번 제3회 민족축제전의 기간은 4월 25일부터 28일까지이며 장소는 문예회관 대극장이다.

◇"한도 많고 그림도 크고"... 본교 영상학부 교수인 신국 장한기 박사의 정년퇴직기념수상집 "한도 많고 그림도 크고"가 출간됐다. 개인의 자전적 수필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출판사는 남지, 가격 5천 원.



1996 제1회 서울 다큐멘터리 영상제를 다녀와서



블모의 땅 기록영화 힘찬 개척 시작

영화의 심장이라 불리는 '기록영화' 우리나라에선 그 심장 박동이 너무나 미약했다.

약한 심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제1회 서울 다큐멘터리 영상제가 지난 16일부터 20일 낮세 동안 동송아트센터 동송홀에서 열렸다. "신진 다큐멘터리리스트들을 발굴, 지원하고 세계 각국의 우수 다큐멘터리들을 소개함으로써 한국 다큐멘터리의 지적 저변을 확대하고 프로그래밍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최했습니다" 개막인사가 끝나자 좌석을 가득 채우다 넘쳐 좌석 열계단까지 매운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와 호응을 보였다. 그 뜨거운 열기로 서울 다큐멘터리 영상제가 열대우림의 나무처럼 우리 다큐멘터리를 세계에 소개하는 글로벌 페스티벌로 속속 성장할 것 같았다.

개최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수준 높은 영상물과 기획안이 접수됐으며(영상물은 기획안에 촬영까지 마친 것을 일컫는다) 접수된 영상물 92편중 17편이, 183편의 기획안 중 26편이 본선에 올랐다.

본선에 오른 영상물은 '자연은 말한다'와 같이 자연의 경이를 담은 자연물, '두말리 새로운 학교가 열린다'와 같이 사회문제를 추적한 사회물,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한 '25' ±α 소수의 도전'과 같은 기록물 그리고 형식실험을 시도한 '각각각각'

과 같은 이색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주제에 다양한 시도가 돋보였다. 본선에 오른 작품들은 기록안의 경우 소재의 참신성과 보편성, 구성력, 기록가치, 작품의 제작가치, 장래성 등이 심사기준이 됐고 영상물의 경우 취재접근력, 음향, 편집 등이 추가 심사됐다.

이번 행사에는 '후프 드림스' '오사카스토리' 등과 같은 우수한 해외 다큐멘터리 초청상영이 있었고 한국 다큐멘터리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심포지움도 열렸다. 해외 초청인사 강연에선 해외 다큐멘터리의 기획, 제작, 배급의 KNOW-HOW에 대해 다뤘으며 행사기간 동안 다큐멘터리 스텝 사전전도 열렸다.

이번 행사는 우리가 평소시 보는 영화와는 색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러브스토리' '잃어버린 너' 등 사실에 근거한 영화에 우리는 더 큰 감동과 예리한 아픔을 느낀다. 사실에 근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영화에 더욱 친밀감과 애뜻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만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의 감동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느끼는 보통영화에서의 슬픔은 아득히 느껴지는 먼 슬픔이며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의 진화 슬픔은 아니라는데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된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슬픔에 빠져 슬픔을 즐기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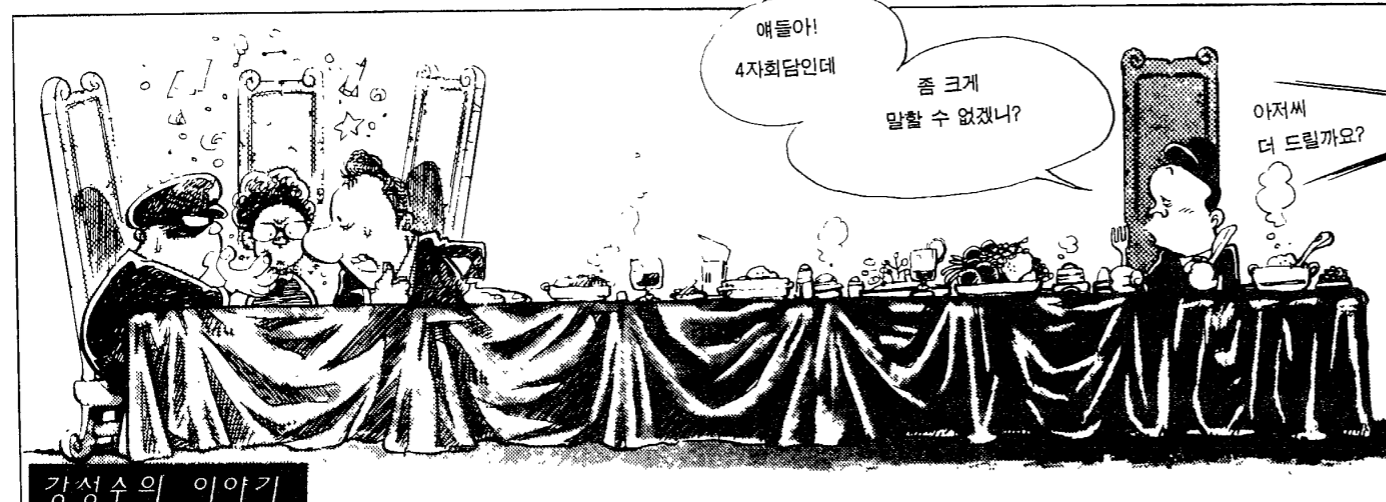
하지만 기록영화에서의 슬픔은 다르다. 우리에게 직접 느껴지는 그 슬픔은 허구가 아니라는데서 현실이라는 데서 낯이 당하는 차가운 현실의 아픔을 하얀 스크린에 딱히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잔인하게 까지 느껴진다.

다른 내용의 기록영화도 마찬가지다. 자연물을 다룬 사회현상을 다룬 스크린의 낭만을 느낄 수도 스크린에 고스란히 옮겨진 현실을 거부할 수도 없는 묘한 감정이 일게된다. 그 묘한 감정은 무미건조한 현실에서 화려한 스크린으로 도망가려만 자신의 대리욕구가 스크린에서 부서져나오는 진솔한 삶의 조각들에 당황한 그런 감정이 아닐까?

단순한 흥미만을 추구하는 요즘 자신의 삶, 이웃의 삶을 주위의 환경을 한 점의 미화없이 되돌아보게 해주며, 끊임없이 배우는 기록영화에서 조금은 묘하고 낯설지라도 삶에 대해 솔직하게 반추해볼 수 있는 디딤돌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감동의 사실감과 압축함으로 절제미를 느낄 수 있는 '기록영화'의 진미가 우리나라에서도 깊이 우려나와 재밌게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민진기자)



강성수의 이야기

메아리 전사와 열사. 대한 공동체감을 가지는 문화적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라고... 이리하여 90년대 대학문화에 대한 우려의 담론들은 잠깐 멈춰야한다. 최근 며칠새 6인의 열사들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고 지배와 권력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었다. '너희들의 빈자리는 내가 채울 것이다'던 오영권 열사는 같은 95학번 동지들을 애도하고 그들과 뜻을 함께 했던 것이다. 이들은 대안에 대한 공동적 감각을 가진 문화적 공동체 속에서 살았다. 우리는 이들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대학문화란 무엇인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가?를 이제 대학문화에 대해 얘기하기전에 '90년대 대학문화는 없다'라는 명제 앞에 잠깐 멈춰서서 '전사와 열사의 대화'를 들어보자. (선)

꿈의 일터- LG가 실현합니다. '한달쯤 지중해가 좋겠어요!' '작년에 다녀온 카리브해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1년이 지났구나... 이번엔 가족들 의견대로 지중해에서 요트 타며 지내야겠다. 모험이 휴가는 세상사 모두 잊고 신나게 즐기는 것- 미주시장 판로 경쟁전도 멋지게 마무리했으니, 슬슬 떠나볼까?' 꿈은, 그 꿈을 꾸는 자만이 실현할 수 있다고 하죠? 최고의 인재가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터- 일할 때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쉴 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방법으로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터- 바로, 세계 최고의 일터를 향한 LG의 꿈입니다. LG는 당신과 함께 이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 꿈의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이나까요! LG